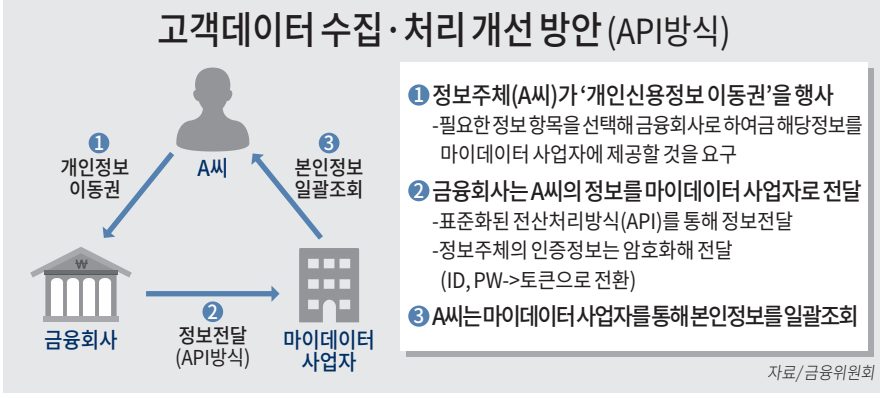
외국사례 참고, 규제 강화로 마이데이터 '철통보안' 절실

금융 이슈리포트

'남의 데이터' 되지 않으려면

지난달 고객정보 유출사고 잇달아
금융당국, API 의무화로 보안 강화

영국, 암호화 정보 개인클라우드 저장
美·日, 법 개정으로 데이터 보안 강화
금융당국, '특별 대응반' 대책 마련



〈업권별 마이데이터 주요 제공정보〉

업권	업권별 주요 제공정보
은행	예적금 계좌잔액 및 거래내역, 대출잔액금리 및 상환정보 등
보험	주계약특약사항, 보험료납입내역, 약관대출 잔액금리 등
금투	주식 매입금액보유수량평가금액, 펀드 투자원금잔액 등
여전	카드결제내역, 청구금액, 포인트 현황,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내역
전자금융	선불충전금 잔액결제내역, 주문내역(13개 범주화) 등
통신	통신료 납부청구내역, 소액결제 이용내역 등
공공	국세관세지방세 납세증명, 국민공무원 연금보험료 납부내역 등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업계 신사업 동력으로 떠오른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지난 5일부터 전면시행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재무 현황·소비 습관 등을 분석해 금융상품을 추천하거나 자산·신용관리를 돕는 맞춤형 서비스다.

현재 은행, 카드, 증권, 핀테크 등 33개 사업자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우선 참여했으며 올 상반기 중 21개의 사업자가 추가로 뛰어들 예정이다. 금융사를 비롯해 핀테크·빅테크 간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비스 연착륙을 위한 보안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보 유출 사고 잇따라…보안 우려 확산

지난달 네이버파이낸셜의 마이데이터 서비스에서 100여 명의 고객 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은행·증권·카드 정보, 송금·이체 내역 등이다.

같은 달 하나금융그룹의 그룹사 통합 마이데이터 서비스인 '하나합'에서도 일부 고객의 이름과 계좌정보 등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두 회사 모두 사고 이후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2차 피해는 없다고 밝혔지만 서비스 시행 초기, 대형 금융·핀테크사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고객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한 수집 정보가 방대한 만큼 금융소비자의 보안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당국은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기존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응용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 방식'을 의무화해 보안성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스크래핑 방식은 사업자가 고객 대신 금융사 사이트에 접속하고 화면을 읽어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추출해 가공하는 기술이다. 다만 개인이 업체에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인증정보를 제공해 필요 이상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있어 보안 문제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API는 다른 프로그램이 특정 기능·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미리 정한 통신규칙으로, 금융기관이 업체에게 직접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용자가 부여한 권한 내에서만 정보수집이 가능해 광범위한 정보수집을 제한할 수 있고 언제, 어떤 데이터가 전달됐는지 파악할 수 있어 보안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힐 수 있다.

다만 API 방식 역시 보안 우려에서 완전히 자유롭진 못하다. 금융사별로 고객의 정보 개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해외의 데이터 수집·저장 방식은

일각에서는 영미권 국가 등에서 앞서 시행된 마이데이터 운영 사례를 참고해 현행 데이터 수집·저장 방식이 안전한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마이데이터 성공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안"이라며 "개인 클라우드 저장 방식을 사용하는 영국 등의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개인데이터 저장소 운영 업체 '디지미'는 자사 서버가 아닌 고객의 개인 소유 클라우드 서버에 암호화 된 형태로 개인정보를 저장한다. 데이터를 이용할 경우에만 고객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가져오는 방식이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업체가 보관하지 않고 사용자의 개인 클라우드 저장소에 보관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노출 우려가 적다.

미국과 일본은 개인정보 보안을 강화하면서 기관과 공유할 정보의 범위 및 양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이달 발표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출범과 과제'에 따르면 민간기업 중심의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한 미국의 경우 최근 '서비스 스위칭 허용 법안'을 통해 개인의 데이터 이동성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데이터 유통 활성화를 위해 국내 마이데이터와 유사한 '정보은행' 제도를 운영 중이며 법 개정을 통해 의료 데이터 유통을 촉진할 방침이다.

국내에서도 마이데이터 수집·활용정보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표준API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지 않은 국세·지방세·관세 납세내역과 건강보험, 공무원연금·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내역 등의 공공정보까지 올해 상반기 중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협의 중이다.

갈수록 비대해지는 개인정보 유통량에 비해 기업의 책임은 미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 분실 및 도난·누출·변조 시 업체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전체 매출액의 3%가량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산정이 어려울 경우 200억원 이하 수준이 부과된다.

한 소비자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취급 정보가 늘어남에 따라 정보 유출 가능성도 커지는 데 비해 기업의 책임은 적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보안 사고 발생 시 처벌 규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특별 대응반을 꾸려 마이데이터 관련 보안 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서비스 및 전산설비에 대한 기능적합성 심사·보안취약점 점검 등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권소완 기자 think@metroseoul.co.kr

Sh수협은행, 작년 연간순익 2843억 달성

2022년 수협은행 경영전략회의
총자산 4.6조 증가한 57.2조 기록
고정이하 여신비율 0.40%로 개선

김진균 수협은행장(가운데)이 2021년 경영대상을 차지한 박양수 전남지역금융본부장(왼쪽 두 번째) 등 수상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h수협은행

Sh수협은행이 지난해 순익 2843억원을 달성했다.

Sh수협은행은 2021년 경영실적 결산 결과 세전당기순이익 2843억원, 총자산 57조1908억원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총자산은 2020년 말(52조5000억원) 대비 4조6244억원 증가했으며,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년동기(0.44%)대비 0.04%p 하락한 0.40%로 개선됐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이 같은 경영실적에 대해 "지난해, 철저한 리스크관리를 통해 높은 대출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신규고객 기반 확대와 핵심예금 증대에 전 직원이 컨센서스를 이루고 함께 노력해 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수협은행은 지난 14일, 서울시 송파구 수협은행 본사 2층 독도홀에서 경영성과와 2022년 경영전략을 공유하는 '2022년 제1차 수협은행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김진균 은행장과 주요임원, 광역·지역금융본부장, 전국영업점장 등이 참석한 이번 회의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총 2차례로 나누어 진행했다.

오전에 열린 1차 회의에 앞서서는 정기인사에 따른 승진자 임명장 수여식과 2021년 성과 우수영업점, 공제 우수영업점 등에 대한 시포상이 진행됐다.

2021년 영예의 경영대상은 우수한 실적을 거양한 전남지역금융본부가 차지했으며, 가락동금융센터와 압구정금융센터가 공동 최우수상, 일산지점이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균 은행장은 "영업점의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업무의 효율을 높여 더 발빠르고 세밀하게 고객을 응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수협은행의 강점인 여신 경쟁력을 한단계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심사역량 강화가 과제"라고 덧붙였다. 또 "고객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사람이 가진 진정성"이라며 "'내가 곧 수협은행의 대표선수'라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처리는 엄격하고 빈틈없게, 눈높이는 항상 고객의 관점에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진균 은행장은 마지막으로 ▲조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임직원 자기개발 ▲고객에게 실질적 도움되는 디지털금융 혁신 ▲미래 지속성장을 위한 주고객기반 확대와 핵심예금 증대 ▲은행과 직원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 만들기 등을 적극 실천해 달라고 강조했다.

/권소완 기자

NH농협은행 '언택트 자산관리 로드쇼' 진행

마케팅기법·금융시황 등 정보 제공

NH농협은행이 비대면 자산관리 세미나를 연다. NH농협은행은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서울 중구 소재 본사에서 '2022 언택트 자산관리(WM)로드쇼'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개최 11년째를 맞은 WM로드쇼는 WM사업 전반에 걸쳐 마케팅 기법과 금융시황 등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한다.

권준학 은행장은 17일 개막식에 참여해 디지털 전환과 고객중심 자산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비대면 시대 자산관리 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을 주문했다.

권 은행장은 "향후 디지털 채널로 WM전문가를 연결하는 하이브리드형 자산관리모델을 구현할 것"이라며 "디지털 채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도 전문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산관리서비스 대중화를 선도하는 농협은행이 되겠다"고 말했다. /권소완 기자

KB국민은행 고등학생 원격교육 플랫폼 지원

'KB라스쿨' 입학식 진행

KB국민은행이 KB라스쿨(La School) 입학식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KB라스쿨은 '즐겁게 공부하는 학교'라는 의미로 지난해 1월에 시작한 사회공헌사업이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 플랫폼을 활용해 고등학생 교육을 지원한다. 유명 강사의 온라인 실시간 강의와 우수한 대학생 멘토의 1대1 멘토링 및 정서함양을 위한 비교과 강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한다.

KB라스쿨(La School)의 새로운 시작을 알린 이번 비대면 입학식에는 대학생 멘토 130여명과 예비 고 1, 2학년 학생 30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의 신년사에서 밝힌 '사회와 환경, 이웃과 국민을 먼저 배려하고 존중하며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KB로 자리매김하자'는 의지에 따라, 청소년들의 꿈을 향한 도전을 위해 KB국민은행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